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차원 따지지 않는 평등한 마음 으뜸”

“닥치는 경계는 모두 내탓
재앙·병고를 공부재료로 삼으세요”

부처님법 바르게 믿는 길

너무 기초적인 것이라서 질문하기가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현대불교 독자층에는 저 같은 초심자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쭙니다. 부처님 법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는 길은 무엇인지요? 가능하시다면 소상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표영순>

부처님 법을 배우는 분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아셔야 할 것은 법당에 가서 팔이나 떡을 올려놓고 비는 게 바른 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불제자라면 마땅히 자성상보에 귀의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체합하고 증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부처님 불씨를 키우는 일이고, 보리를 낫기우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부처님 법, 부처님 법 하지만 우리를 생활에서 여러분들 빼놓고, 가정 빼놓고, 사회 빼놓고, 국가·세계 빼놓고서야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를 한사람 한사람 태어난 게 그대로 화두이며 태초라고 항상 말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작다고 할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간이나 부부간이나, 위 아래로 항상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평등한 행을 하고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얼굴로 대한다면 그게 자비심이 되는 겁니다.

조금 괴롭다 해서 짜증을 내기보다 항상 내 부처님에게 맡겨놓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때 정말로 자식 될 자격, 부모될 자격이 있고 부처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라 종지만한 차원이 있는가 하면 바다 길이 넓은 사람도 있어서 다 제 차원으로 삽니다. 그런데 제 차원에서 옳다고 그러는 건 내 차원에서 그러고 할 수도 없으니 평등한 마음에서 뜻으로 행하고 뜻으로 알아먹게끔 한다면 전달되는 사이없이 전달이 되어서 서로가 밝고 편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행으

로 되어야 불제자이지요.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전세계를 볼 때에 그래도 한국의 선맥이 제일 우수한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도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도반으로서 그 가르침을 토론하고 가르치고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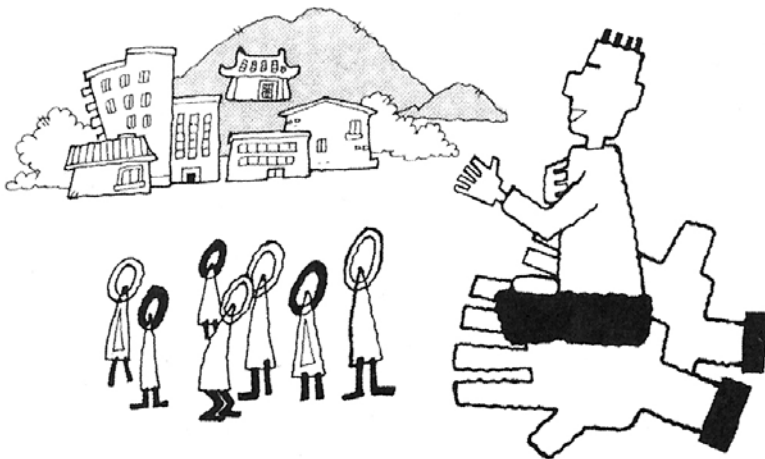
지금의 사정이 좀 안 좋아서 집집이 부족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절에 다니는 분들이 복이나 빌고 왔다 갔다 절에 다니는 것으로만 불자가 된 줄 아셔서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이렇게 반 쪽으로 나뉘어 사는 것도 원통하고, 과거에 불행했던 일도 그 계기를 보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혜를 닦지 못했던 까닭인데 그걸 돌아다 보면서라도 자기 부처를 믿고 제 분수를 지키고 참 뜻을 증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북통일도 될게 아닙니까.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가 마음으로 통해서 조절이 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과 한마음이니 뭐든 하자고 하면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찌 하나 잘 되게 해야 한다고 비는 걸로 불자입네 하겠습니까.

어느 사찰에서는 그걸로 죽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떡 찌는 게 산 사람들이 먹는 거지 귀신이 먹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산 사람의 마음에 신이 있기에 그 신으로 인해서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상 조성해 놓고 그림 붙여놓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믿는 그 의식이 부처님한테 모아져서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방엘 가도 도랑이요 마당엘 나가도 도랑이요 변소도랑 가도 거기 도랑인 것입니다. 거기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또 딱 고정되게 뭔가를 생각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과거 삼, 현재 삼, 미래 삼 그 삼세와 한마음으로, 한 불심의 기쁨으로 바뀌처럼 찰나 찰나 돌아가고 있으니 그대로 색과 공이 둘이 아니요,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



그림·최주현

“복빌러 다니면서 불자 다 된줄 알면 안돼” “갖는 도리 버리고 주는 도리를 배우세요”

다 이겁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속개우쳤다 해도 다시 미(迷)해지게 분명하고, 실사 깨우치지 못했다 해도 사람도 다 다하며 살기도 어렵고 개인이나 나라나 적지않은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치하에서 빠져서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도 다 그 때문입니다. 그냥 내 것만 알고 나만 편안하기를 바라고 불법의 진리를 밀쳐 놓았기에 그리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사는 모습을 보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자기를 되돌아 보지도 못하고 자기 분수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앞길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바람 잘 날 없이 삽니다.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자기의 정신력을 상실하고 그냥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바람부는 대로 쏠려 다니다가 그만 제 집, 조그마한 집 한채를 그냥 태워버리고 맙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우선 피하고 보려 합니다. 그러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단호히 없애려고 해야 합니다. 귀신이 열, 스물, 백이 담벼단다고 해도 그것은 나이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선이든 악이든 우리가 마음을 개방하고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면서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 되는 그런 도량입니다.

마구니가 붙어다니는 것 같아요

스님! 한 세상 살아나는데 너무 나더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힘이 든 나머지 어느 때는 저에게 마구니가 붙어

안을 수 있고 행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 아닌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곳이 없게 됩니다. 그쯤 되어야 내 중생들을 다 건질 수 있고 내 가족, 내 이웃도 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특별히 내게 뜻이 찾아온다고 생각지 말고 오면 오는데로 다 놓고 다 주어 보세요. 다 버리면 다 있습니다.

싸우고 혈투는 세상인데...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된 세상인지에 맨날 싸우고 혈투는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서울 김문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이놈의 세상 어떻게 됐길래 이 모양이 풀이나, 살기가 싫다고 하시는데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등한 마음으로 마음도리를 배우신다면 이 세상이 자재천국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이 마치 지옥고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세상을 타지기 전에 내 마음을 개방해서 나도 구하고 이웃도 구하는 도리를 터득하셔야 합니다.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재앙이라든지 병고든지 뭐든 닥쳐오면 그것을 공부재료로 삼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알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용어를 쓰는 이유

스님께서는 ‘주인공’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그냥 ‘자기’라고 하지 않고 왜 때로 용어를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까? <서울 지대운>

자신이라고 하면 꼭 참하겠다는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건 왜냐? 자기 몸뚱이가 공했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도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지요? 먹는 것도 그렇지요? 말하는 것도 밥금 내 한 말이 그냥 과거로 흘러 갔지요? 가는 것, 오는 것, 듣는 것, 보는 것, 만지고 헤어지는 것, 도무지 세상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니 어느 때를 꼭 집어서 자기라고 하겠습니까? 연방 돌아가는데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44)

이왕 사랑을 할 바엔 죽고 못사는 사랑을.

“놓는 데는 이유가 없다. 조건이 없다. 무조건, 닥치는 대로 맡겨라. 놓고 가야 한다. 아는 것 모르는 것, 행도 불행도, 가난도 병고도 다 맡겨라. 놓아라. 맡기고 놓아도 잘 안 풀린다는 그것마저도 놓아라. ‘주인공 뒤편에 길을 인도할 수 없지’ 하고 놓아라. 그것만이 마음을 비우는 작업이요 억겁 전부터 짊어지고 온 짐을 내려 놓는 작업이며 마음의 때를 씻는 작업이요 내가 죽는 작업인 것이다.”

주인공에게 일체를 맡긴다. 놓는다 해서 ‘맡기는 나’와 ‘받아들이는 나’가 따로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그것은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함께 인 것이요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맡긴다. 놓는다 하는 것은 지극한 헌신을 의미한다. 자신을 완전히 잊고 대상에 철저히 귀의하는 것 또는 ‘나’는 쑥 빠지고, 오로지 대상과 하나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거기엔 두가지 전혀 다른 길이 있다. 하나는 헌신의 대상을 바깥의 그 무엇으로 삼는 것, 예를 들면 절대자 하나님이나 무슨무슨 신, 혹은 미륵부처를 섬기는

경우이다. 또다른 길은 헌신의 대상을 자기 자신의 본성자리로 돌리는 경우이다. 앞의 것은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완성자·절대자를 향해 전심으로 귀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로 보지 않고 완전자인 부처가 될 가능성의 존재로 보아 각자 자신의 불성에 귀의하라는 것이다. 고로 불교의 헌신은 현재의 자기가 본성의 자기에게 헌신하는 것을 말한다. 놓음·맡김은 바로 내면을 향한 귀로(歸路)인 것이다.

헌신은 곧 사랑이다. 완벽한 헌신은 완벽한 사랑이다. 대상에 귀의하여 대상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곧 완벽한 사랑의 경지이다. 따라서 놓음·맡김은 현재의 자기가 본성의 자기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 본성의 자기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한다.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 대상과의 동화(同化)는 불가능하다. 부모가 자식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놓아야지, 맡겨야지 혹은 놓았다 맡겼다 하는 것은 아직 진정한 헌신이 아니다. 대



부분의 경우 그것은 또하나의 상념(想念)에 불과하다. 놓았다는 생각, 맡겼다는 생각의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아마도 자기희생의 일종이기 쉽다.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다. 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은 몸 전체로 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맡김·놓음은 생각이 아니라 상태이다. 아무런 상념의 찌꺼기가 남지 않은 완벽한 헌신이다. 몸과 마음이 다 쏟아 부어진 상태, 그야말로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경지인 것이다.

고로 주인공에 맡긴다, 주인공에 놓는다 가 아니라 주인공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내가 주인공에 맡기고 놓는 게 아니라 ‘나’는 사라지고 그냥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다.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자식의 이름으로, 자식의 뜻으로 살듯이 그렇게 주인공의 이름으로, 자기 본성의 뜻으로 살아야 한다. 맡기는 나도 사라지고 놓는 나도 사라져야 한다. 오직 주인공만이 있음으로 살아야 한다.

아니라 맡김의 연습일 뿐이다. 몽땅, 무조건 놓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놓음이 아니라 놓기 연습을 하는 데 불과하다.

물론 그런 연습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연습만으로도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는 있다.

험만한 경계쯤은 시달리지 않고 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편안함은 자신을 둔하게 만들고 매사에 소극적이 되게 한다. 그런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완벽한 맡김에서 찾아오는 자유가 아니다. 거기에선 기쁨도 즐거움도 아주 미약하다.

하지만 완벽한 맡김엔 비할 데 없는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본성의 자리에서 생사는 환희가 있고 대자유가 있다.

그 맛을 모르고 연습만 할 것인가. 이왕 맡기고 놓을 양이면 ‘나’가 사라지고 없는 그런 헌신을 하라. 주인공, 그대가 아니면 죽고 못산다는 그런 사랑을 하라. 환희심이 그대를 받게 될 것이다.

협찬: 이명숙